

2주: 문학교육에 대한 제반 관점

1. '문학' 개념의 역사적 접근

- 문학개념은 역사에 따라 그 매체, 향유 방식이 달라져 왔음.

2. '문학'의 다양한 개념과 문학교육

1) '실체'로서의 문학과 문학교육관

-문학관: 문학을 가시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, 곧 작품이나 문학인으로 이해.

-교육의 주안점: 작품 혹은 작가, 혹은 문학사 등의 이해. 내면화.

문학에 대한 사실적, 명제적 지식의 체계적 이해 중요.

위대한 작품, 위대한 작가의 이해와 감상 중심의 문학교육관.

-의의: 위대한 정신과의 만남을 통해, 유적 존재로 사회적, 역사적 유대.

-한계: 문학을 전문화, 신비화하여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의 맥락에서 문학을 수용하지 못함. 지식 교육 자체에만 한정될 수 있음.

2) '속성'으로서의 문학과 문학교육관

-문학관: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본질적 속성으로 이해.

-교육의 주안점:

:문학성의 요소들 중심의 교육. 문학감상과 이해를 위한 전이력 있는 지식 교육.

: 소설, 시의 요소들 (운율, 이미지, 구성, 인물, 사건, 배경 등)

문학의 일반적 특성(형상성, 허구성, 문학적 인식, 문화적 실천 등)

-의의: 전이력 있는 지식으로 문학 이해력을 포괄적으로 넓힘.

-한계: 문학에 대한 고정적 지식 유포.

문학성을 비문학성과의 이분법적 틀 속에 고정시킬 우려.

3) '활동'으로서의 문학과 문학교육관.

-문학관 :문학이 인간의 활동 속에서 성취되며,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접근.

문학과 비문학의 차이보다는, '창조적인 언어 문화'전반 속에서 이해, 문학의 외포와 내연을 확장함.

- 교육적 주안점: 활동, 경험 중심 문학교육

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'방법적 지식'이나 '절차적 지식' 등이 중요. (감상, 창작 등) 특히, 문학 창작 교육을 중시함.

-의의: 문학 표현 교육 가능. 문학의 다양한 모습을 포괄적으로 수용.

-한계: 기초적인 개념 지식 불충분할 수 있음.

개인적인 활동만을 강조하여 문화적 동질감 획득에 한계.

4) 3가지 관점을 포괄, 종합, 위계화할 필요.

3. 문학교육과 타교육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본, 문학교육적 관점.

-국어교육과 문학교육

-예술교육과 문학교육

-문화교육과 문학교육

(문학교육의 다양한 쓰임을 고려하고, 영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.)